

# 발명 365

## 지우개 달린 연필

미국 필라델피아 근처에 하이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소년은 진학도 포기하고 그림을 그려 팔았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보면 곧잘 지우개가 없어지고, 그것을 찾다보면 주의력은 떨어져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자 소년은 연필 옆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연필 뒤에 양철을 감아서 지우개를 달아놓으니 여간 편리하지 않았다.

며칠 뒤, 소년의 친구가 와서 보고 그것을 많이 만들어 팔자고 했다. 이 지우개 달린 연필은 1867년 7월 특허가 나왔고, 친구는 그 권리증을 가지고 연필제조회사에 가서 팔았다. 연필 한 자루가 팔릴 때마다 매출액의 2퍼센트를 받은 하이만이 17년 동안 번 돈은 1천만 달러에 달했다.

